

국제경쟁시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국제경쟁력이 살아남기 힘들다

UR 타결 이후 세계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였다고도 하고, 언론에서 연일 국제화니, 국제경쟁력이니 하는 다소 생소한 단어가 넘쳐나고 있다. 농업분야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이렇게 까지고양되었던 적은 아마 산업화 이후 처음있는 일인 듯 싶다. 국토의 면적이 좁아 농가경제규모가 영세하고 생산비가 높아서 “농업은 국제경쟁력이 없다”는 명제를 모든 국민이 “지가가 둥글다”라는 진리처럼 믿으면서 아무런 대안없이 농업 포기론에 휘말려 있는 것이다.

과연 열린 경쟁의 시대, 무한 경쟁하에서 국제경쟁력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식육산업(축산업, 축산물유통업)에 있어 국제경쟁력 제고의 전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1. 국제경쟁력이란 무엇인가?

'94년 새해 우리는 국제경쟁력 제고의 사명을 띠고 이 땅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통령을 비롯 정부, 기업,

학계, 언론 등 사회 전체가 국제경쟁력 제고의 전염병을 앓고 있는 듯 싶다.

그런데 국제경쟁력이란 말에 대한 상호간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오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국제경쟁력이란 무엇인가. 한국 농업(축산업, 식육산업 포함)의 국제경쟁력을 낮게 평가할 때 사람들은 흔히 앞에서 이야기한 것 처럼 국토면적이 좁고 농가경영규모가 영세하여 생산비가 높다고 인식하는데 이는 국제경쟁력을 경제학적인 관점에 입각한 시각에서 보는 것으로 한 국가가 보존자원이 부족하여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국제경쟁력이 약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여러가지 요인 중의 하나에 불과한 생산원가만으로 그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특히 UR타결 이후 국경이 소멸된 국제화 세계에서 원자재는 물론 노동력과 같은 생산효소가 국제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 환경 아래에서는 이런 부존자원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약해진다.

김종건 이사
((주)롯데햄 롯데우유)

특히 식육산업(축산업)처럼 농업분야중 토지의 제약이 적은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을 현상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큰 오류라 하겠다. 수입사료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 식육산업(축산업)중 특히 양계, 양돈분야는 내부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미국과 덴마크 등 수출국가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점 역시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전세계 산업구조의 개편 이후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장미빛 추측만을 가져서는 무리인 듯 싶다. 보다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경영자세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 국가가 가지는 국제경쟁력이란 무엇인가.

우선 경쟁력이 약한 국가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국가 내에 존재하는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이때 산업의 국제경쟁력이란 경쟁력이 강한 산업이 범세계적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쟁에서 소비자가 가지는 욕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시장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획득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경쟁상대에 대하여 우월한 시장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산업이 우연히 또는 외부조건에 의해 국제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러한 국가를 국제경쟁력이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 특정국가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들 산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국제경쟁력의 원천이 그 국가 내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첫째,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있고, 둘째, 이러한 산업이 다수 있으며, 셋째, 이러한 국제경쟁력이 쓰는 그 국가 내에 존재하는 고유한 원천 때문에 형성된 것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국가를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5개 개발도상국가중 6위란 신문 보도가 있었다. 과연 한국 식육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몇 위일까?

2. 식육산업에 있어 국제경쟁의 실태

우선 축종별 생산비를 비교하여 국제경쟁력을 알아보면 쇠고기의 경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한국보다 비싼 편이고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는 한국의 20% 수준에 있다. 또한 지육가는 일본이 6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과 호주의 경우는 20% 수준이 된다.

돼지의 경우 국별 생산비를 비교하여 보면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12만 4천원(90kg 기준)이고 미국은 8만 1천원, 일본은 14만 1천원, 덴마크는 9만 6천원, 대만은 10만 7천원으로 나타나 주요 수출국이 한국의 생산원가보다 20

<표1>국가별 생축 및 쇠고기 가격 비교(산지, 도매 기준)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호 주	네덜란드
생축 kg당 (%)	6,007원 (100)	6,928 (115)	1,293 (22)	1,343 (22)	2,225 (37)
지육 kg당 (%)	7,632원 (100)	12,247 (160)	1,810 (24)	1,258 (16)	-

한국, 일본, 네덜란드 : '92년, 미국, 호주 : '90년
 자료 : 조병태(농촌진흥청 육우과장), 「한우의 수출전략과 해결과제」

92

<표2>생축의 국제경쟁력 비교

(단위 : 원/지육 kg)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호 주
쇠고기 지육 (%)	7,632 (100)	12,247 (160)	1,810 (24)	1,258 (16)
국내도축 판매원가 (%)	7,632 (100)	14,480 (190)	2,198 (29)	1,528 (20)

<표3>국별 양돈 생산비

(단위 : 천원/90kg)

구 분	한국('92)	일본('90)	미국('88)	덴마크('88)	대만('88)
생산비	124	141	81	96	107
%	100	114	65	77	86

자료-한국 : 축협, 일본 : 축산경영동향, 미국 : 아이오와 농업통계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 수입국인 일본은 한국에 비해 10% 이상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축산경영의 생산원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별로 한, 미, 일 3국을 비교해 보면 <표4>와 같이 나타나는데 양돈경영의 형태차와 생산비 산출방식의 차이에 따라 직접 비교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으며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축비와 사료비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분야의 절감노력에 따라 양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가우위의 경쟁력비교는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분야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즉 국제경쟁력의 제고방안으로 원가우위전략과 차별화전략이 있는데 과거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기, 그 성장을 주도한 주요전략이 값싼 노동력

을 앞세운 원가우위전략이었고, 이러한 전략은 한국경제를 오늘날의 규모로 발전시키는 공헌을 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세계시장은 원가만으로 경쟁을 하는 단계를 넘어 철저한 차별화전략의 수행없이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식육산업(축산업)에 있어서도 차별화의 요소인 연구조사, 제품개발, 마케팅분야 등의 비교분석을 통한 경쟁력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제 차별화를 위한 연구와 노력이 식육산업 전분야에 도입되어야 할 시기이다.

3. 우리는 어떻게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인가?

UR 이후 무한경쟁을 생각해야 하는 우리는 우리가 처한 경쟁적인 상황이 매우 절박한 것

임을 인식해야 한다. 톰 피터스의 “경영 혁명” 머리말을 적어 보는 것으로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인가 하는 분야의 논의를 시작할까 한다.

“10%의 인원감축과 20%의 품질향상만으로 경쟁우위에서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러한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혼란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딛고 번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미래의 승리자들은 혼란을 전향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그들은 혼란 자체를 피해나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우위의 원천으로 바라볼 것이다. 혼란과 불확실성은 현명한 자를 위한 시장기회이다. 즉 순간적인 시장의 격변을 이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우리의 가장 훌륭한 업적이 될 것이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 기존 산업 내의 문제점을 알아 보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보면, 특히 축산업분야에는 너무나 많은 단체가 각기 자신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통합, 조정하여 일괄성있는 수급조절이나 정책개발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축산물이란 최종소비자가 소비하기 까지 다양한 중간재의 형태로 가공, 유통되는 유통의 경로가 복잡한 산업군을

<표4>국별 양돈생산비 비교

(단위: 원, %)

	한국		미국		일본		A/B	A/C
	A	%	B	%	C	%		
가축비	414	28.6	38	5.2	718	45.8	10.89	0.58
사료비	663	45.8	369	50.4	553	35.3	1.80	1.20
수도광열비/잡비	28	1.9	20	2.7	60	3.8	1.40	0.47
노동비	171	11.8	76	10.4	166	10.6	2.25	1.03
기타	172	11.9	230	26.1	70	4.5	0.75	2.46
계	1,448	100	733	100	1,567	100	1.98	0.92

자료: '92: 축산물 생산비 조사 보고(한국) '93: 식육 산업(일본) '91: 아이오와주 통계(미국)

형성하고 있다.

이들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를 통합하여 식육산업이라 정의할 때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까지 그 산업에 속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계층과 의식의 다양화로 일괄적인 산업전체의 발전적 견해를 도출해내는 데에 많은 문제가 있어 왔다.

이러한 과정의 통합과 합일된 의견을 만들어 식육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식육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의 기본이라 하겠다.

아마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리엔지니어링의 축산물 관련분야의 도입이 곧 식육산업이란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 그 과정의 복잡성과 단절성, 영세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구조의 구축, 즉 프로세스의 변혁을 이룩하는 것이다.

식육산업에서 리엔지니어링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은 식육산업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연구와 그 연구의 믹스를 통해 일괄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에서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우리 양축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건 품질 경영의 도입이다.

이제 식육산업에 있어 양의 시대는 지났다. 사회의 경제발

전수준은 이미 배고픔의 시대를 넘어 한단계 높은 육구충족을 희망하고 있다. 즉 건강지향적인 면이 강조되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자인 양축가 역시 고객지향적인 마케팅 개념을 가져야 한다.

건강지향적인 지방이 적고 향생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무공해돈을 생산하는 노력, 브랜드화를 통한 마케팅 믹스의 극대화, 기본이 되는 안정적 품질의 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품질향상을 통한 국내 냉장육 유통시장의 구축과 일본 수출시 현 가격경쟁적 전략을 탈피, 냉장 고급육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고품질 차별화전략의 수행이 필요하다.

기업 역시 식육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지향적 마케팅의 도입과 자세를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자들 특히 식육산업의 경우는 이미 다국적기업을 지향하는 거대 PACKER과의 힘든 경쟁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의 기업도 단순히 이익 창출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식육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사회에 봉사한다는 새로운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여 식육산업의 과학적이고 조

직적인 압축성장의 주체로서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한 노력과 가공설비의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과거 산업화 과정 속에서 기업이 보여주었던 기적적인 성장의 저력을 식육산업분야 뿐 아니라 전농업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힘있는 공헌을 할 때이다.

정부 또한 식육산업의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공적 목적의 공공재 생산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생적인 도축장 건설 및 원가절감을 위한 물류시설의 확충 등 산업에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원가절감과 국민건강과 위생상의 문제가 없는 최상의 식육제품의 생산을 도와야 하며, 식육산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일괄성있고 총체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 승리하는 미래의 희망적 용기를 안겨주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싶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식육산업 분야, 특히 양돈산업은 그 산업과 관련된 각자의 새로운 노력과 협력을 통해 충분히 그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살아남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차별화 전략을 구축·수행, 무한경쟁이란 혼란과 불확실성을 시장기회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양돈산업의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으리라 믿는다. ■